초등학교에 동심공원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대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 채송화, 패랭이, 옥잠화 등 30여종과 향나무, 은목서, 금목서 등 20여종의 나무를 심어 '동심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보건소 주차장은 직원용?

4년째 민원인 출입 통제…구청선 "침수 우려" 핑계만

광주시 북구가 수년간 보건소에 마련된 민원인 주차장을 놀려둔 채 민원인 차량 출입을 통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보건소 지하 1층(연면적 347.68㎡)에 마련된 민원인 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주차 가능 대수는 8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보건소에서 직선거리로 30m 떨어진 교통과 건물에 마련된 유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보건소를 찾고 있다.

현재 보건소 민원인 주차장은 약품 등을 저장하는 저온 냉장고와 방역차·구급차·직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이 민원이 주차장에서 민원인이 쫓겨난 이유는 지난 2008년 8월 초 집중 호우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민원인이 주차한 승용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소는 주차장 입구 문턱을 높이는 보수공사를 했지만, 이듬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자 민원인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은 주차를 하면서 민원인들은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장애인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북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가 협소한데다, 침수 가능성이 커 민원인들에게는 교통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도 1시간 무료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민원인 주차장(152면)과 직원 주차장(112대)이 마련돼 있지만, 주차 공간이 비좁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광주시교육청 감사 착수

광주시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평생교육시설인 D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교비로 주차장 부지 구입과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 등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또 설립자를 평생교육사로 임명,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졸업장을 남발한다는 이른바 '졸업장 장사' 의혹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유해성 적조 7월중순 발생

평년보다 남해안 수온·염분농도 낮아

매년 여름이면 수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6월 현재 남해안의 수온은 영상 17~19도로 평년보다 0.5~1.5도 정도 낮아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평년보다 3주 정도 늦은 7월 중순부터 출현할 전망이다.

콜클로디니움은 남해중부 바깥수역에서 7월 중순부터 저밀도로 출현한 뒤 8월 초순에 밀도가 높아져 같은 달 중순부터 중밀도 이하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닷물 1㎖당 코클로디니움 300개체가 발생하면 적조주의보, 1천개체 이상 발생하면 적조경보가 내려진다.

국립수산과학원 이창규 박사는 "현재는 바다의 수온이 낮은데다 염분의 농도도 평년에 비해 2~3도 정도 낮아 유해성 적조 성장에는 불리한 조건"이라며 "매년 8월에 접어들면서 수온이 평년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 적조 발생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구 고싸움놀이 세계문화유산 되나

區, 등재 추진…내달 학술대회 개최 등 준비 본격화

광주시 남구는 28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고싸움놀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첫 단추로 오는 7월 5일 칠석동 고싸움테마파크 영상체험관에서 남도민속학회(회장 김은정)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학술대회에서는 '의향 광주의 문화적 표상으로써 고싸움'을 주제로 한 전남대학교 나경수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고싸움의 가치와 특징이 논의될 예정이다.

남구는 또 고싸움에 대한 학술적 연구자료 수집 등 준비 단계를 거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남구는 매년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을 초청, '고싸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전국학술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고싸움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싸움놀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로 등재돼 있으며, 남구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남구 칠석동 일대에서 고싸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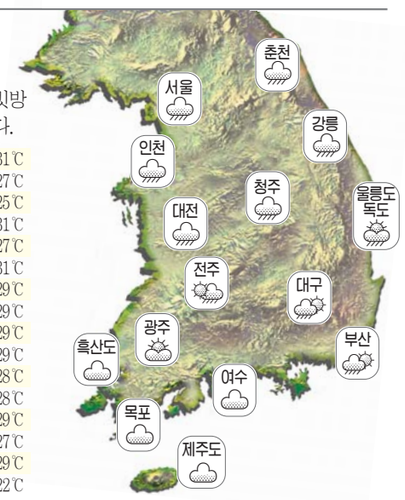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해짐 19시 51분 달뜸 03시 11분 달짐 18시 01분

불쾌지수 매우 높음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3/31℃
목 포	흐림	22/27℃
여 수	흐림	22/25℃
나 주	구름많음	22/31℃
완 도	구름많음	21/27℃
구 례	흐림	22/31℃
강 진	흐림	22/29℃
해 남	흐림	22/29℃
장 흥	흐림	22/29℃
순 천	흐림	22/29℃
영 광	흐림	23/28℃
진 도	흐림	22/28℃
전 주	오후한때비	24/29℃
군 산	오후한때비	22/27℃
남 원	오후한때비	22/29℃
흑산도	흐림	19/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동~남	1.5~2.5m

	밀물	썰물
목포	00:42 12:25	06:16 18:00
여수	07:24 20:09	01:37 13: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목)	7/1(금)	2(토)	3(일)	4(월)	5(화)
날 씨						
최저/최고	23/29	23/29	22/30	22/30	22/27	22/27

"21세기말 한반도 기온 6도 상승"

국립기상연구소 전망

별도의 탄소저감 노력 없이 현 추세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21세기말 우리나라의 기온은 1세기 전에 비해 최고 6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구평균 기온 역시 4.8도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은 6%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오는 2013년에 발간될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5차 보고서 및 국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RCP) 4종 중 일정 수준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작동할 경우(RCP 4.5)와 탄소저감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경우(RCP 8.5)에 대한 전망 결과를 산출했다.

지구평균으로는 RCP 4.5 기준일 때 2.8도 이상, RCP 8.5 기준이면 4.8도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은 각각 4.5%와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